

날마다 깨달음을 얻다

생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온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지속 해 왔다. 근대 서구의 사상이 객관주의적이고 이성적, 그리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존재론을 구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 이와는 역으로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동양사상은 주관주의적 인 직관을 기반으로 세계와 관련 해 왔다. 그것은 주관적인 마음이 인식의 주체임으로 객관 적인 존재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물리학이 '하나'에서 '많음'을 보려는 기계론적인 사고로, 물체를 3차원 공간에 현 존하는 것으로만 보는데 반해서, 동양사상은 그 직관적이고 유기론적인 방법으로 '많음'에서 '하나'를 보려하고, 일체를 생멸하는 변화로서 초월적으로 보는, 즉 4차원적 시공의 차원에서 보려고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물리학이 이룩한 성과들은, 동양의 사상들이야 말로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모델이 될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1964년에 발표된 위대한 '벨의 정리(Bell's Theorem)'는 예를 들어 한 쌍의 전자스핀(Spin)을 각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 두 입자의 시스템은 분할할 수 없는 전체의 시스템으로서 비 국소(non local)적인 연결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은 독립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으로, 우주는 부분으로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의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우주는 전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구조로 상호작용하며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8년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인류 과학상 아주 아름다웠던 실험이 있었다. 그것은 미립자의 이중 슬릿(slit)실험으로 관찰자 효과(observer effect)에 관한 실험이었다.(1801

년 토머스 영이 광자의 이중 슬릿 실험도 있었다. 이 실험에서는 빛이 파동성을 가진 것을 증명했다.) 물질의 최소 단위인 전자들을 수천만 배로 확대해 자동발사 장치에 넣고 전자 알갱이들을 이중 슬릿(가늘고 긴 틈)을 향해 쏘았다. 그 결과 뒤 벽에 나타난 것은 당연히 두 줄의 알갱이 자국이였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사람이 없을 때 쏘았더니 벽에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물결 모양의 무늬가 생겼다. 사람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쏘았더니 전자 알갱이들은 슬릿을 통과 할 때 파동으로 전위되어 물결모양의 간섭무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발사하면 두 줄의 알갱이 자국이 다시 생겼다. 신비스럽게도 관찰자가 봄으로 해서 파동의 기능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이 실험은 관찰자가 볼 때는 물질(입자)로서 형상을 나타내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늘 비 물질(파동)로서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관찰자는 물질로서 존재를 하는 것인가?

관찰자 역시 고유한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않은가.

그래서 우주는 출렁이는 환상의 세계이며 삼라만상이 고유한 물질이 아닌 홀로그램과 같은 허상이라는 것, 불교의 공즉시생의 사상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3차원 현상은 환영이고, 원자는 특정한 곳에서만 나타나며, 측정하는 곳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모든 원자는 모든 곳에 퍼져 있다가 의식적 관찰자가 그것을 보기 원하기를 결정하면 나타난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관찰자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장하는 여러 가능성 속에 있을 뿐, 어떤 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수백 수천의 에너지, 빛, 전기가 이 3차원의 상상의 물질세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상상의 산물이다.

모든 물질은 단순히 에너지가 낮은 진동수로 압축된 상태일 뿐이다. 우리가 보는 형태는 외

부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체계에 따라 그 정보를 해석 해 나타난 그림이다. 무의식적인 믿음체계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환영은 마음의 내면에서 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에서 온 결과이다. 환영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존재, 사람, '나'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그 의미를 새로 보기 시작하면 무한한 영역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무한함은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의 일부이다. 무한함을 찾는다는 것은 제한된 의식 그것을 초월하는 노력이다.

수동적으로 현실에 반응하여 끌려가는 삶이 아닌, 능동적으로 마음껏 창조하는 삶을 열어가 수 있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2015년 3월 27일

진명헌에서

이 강소